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통일 위상학 변화

차문석

【목 차】

- I. 서론: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위상학
- II.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전략
- III. 중국의 글로벌 전략과 중국몽(中國夢)
- IV. 미중 대결의 성격과 한반도 위상 변화
- V.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과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
- VI. 결론

1. 서론

: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위상학(位相學)

본 연구는 21세기 국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 모형 만들기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을 위한 특정한 개념들(concepts)을 만들고, 그 개념들을 조합하여 분석틀(frame)을 만들며, 그 분석틀 안으로 실재(實在)와 팩트들(facts)을 투입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특정한 전략들과 시나리오들을 창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이른바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적 모형을 만들려고 한다.

최근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위상(학) 혹은 위상학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은 글로벌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과 붕괴 과정)과 그로 인한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최근의 글로벌 및 동북아 질서의 변동과 재편은 한반도 통일의 위상에 대한 전례 없는, 그리고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생산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 위상학’(topology)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구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패러독스(paradox)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¹⁾의

균열과 붕괴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20세기에 지배적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굴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제출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균열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7년에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간주²⁾하면서 국제적인 규칙 준수를 요구하였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하위에 위치해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미-중 대결 구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었고 여기에 북한의 핵문제 등 역내에서 국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세의 복잡함을 더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2017-18년에 들어와 동북아 지역 정세는 超불확실성(hyper-uncertainty)과 거대 폭풍(perfect storm)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하고 무질서한 정세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언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략은 21세기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자 대외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다. 이는 고대 실크로드(Silk Road) 주변 지역 및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중심의 (경제+군사+외교+안보의) 전략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태평양을 묶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선언하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이래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인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확대 수정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중국을 전략적으로 제어하면서 일본과 호주가 이 전략에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³⁾

현재 한반도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붕괴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붕괴 이후 그 공백에서 각 대륙과 국가들에서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이해와 국익추구 일변도의 정책적 경향을 낳고 있으며, 결국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동의 협력적 추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역내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제를 명백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통일이라는 미래 과제(이른바 ‘명백한 운명’⁴⁾)를 추구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패러독스(paradox)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의 전방위적 실행과 대결이라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어떠한 위상학(topology)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공간적으

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1945년 이후 형성되었다. 1945년 이후 설립된 다양한 국제기구들(WTO, IMF, OECD, UN, EU, NATO, GATT 등)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고, 脫냉전 이후에는 전 지구적 규모의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구축되었다.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서울: 후마니타스, 2015), p.31.
2) 2017년 미국의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핵심 도전은 수정주의 세력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의 재부상’이라고 규정했다.
3) 2017년 미국의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참조할 것.
4)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1845년 뉴욕의 잡지 *Democratic Review* 편집자인 존 어설리번(Jone O’Sullivan)이 미국의 서부로의 팽창 등을 명백한 운명과 신이 베푼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하나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즉 ‘명백한 운명’에 비유하고자 한다.
5) 위상학(topology)은 위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토포스’(topos)와 학문,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logos)를 결합해 만든 용어이다. 위치를 다루는 학문, 즉 위치와 형상에 관한 기하학을 의미한다. 위상학은 20세기 자연과학과 수학,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안과 바깥의 불가분성에 대한 탈구조주의적 사유와 연결 가능하다. 강동호, “문학의 한계 안에서의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또는 비평의 위상학을 위한

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위상학에 따른 통일 과제, 즉 ‘명백한 운명’의 세팅(setting)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 외교적 전략과 대안도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

한반도 통일이 갖고 있는 위상(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 혹은 방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위상학적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관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개념(시간, 공간, ‘한반도’)을 분석적 장치로서 가동시키고, 종국적으로 ‘전략과 운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1) 위상학(topology) 분석

원래 ‘위상학’(位相學: topology)이라는 것은 ‘공간의 구조적인 측면 내지 공간들의 위치 관계들을 우선해 다루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⁶⁾ 이러한 위상학 방법을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용하여 활용한다.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통일을 구성하는 담론이나 용어, 그리고 표방하는 액면의 가치와는 별개의 동학 속에서 구성된다. 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아우라(Aura)의 위상학 분석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다.⁷⁾

벤야민은 ‘한 인공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한반도 통일이 작동되거나 실현되는 그 공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 공간에는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체가 존재한다. 이 주체들(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한반도 통일 위상은 더 복잡한 구조 속에서 놓이게 된다.

위상학적 분석을 좀 더 확장시키면 새로운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 바로 한반도를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먼저 한반도를 영토적 혹은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접근방법인 ‘지형학’(地形學)에만 맡기지 않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과 이들 국가들의 이해와 욕망들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떤 의미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러한 맥락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2) 세 가지 개념

: 시간, 공간, 그리고 ‘한반도’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개념을 동원하여 전체적인 연구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時間)이다. 여기서 시간이란 특정한 공간, 즉 한반도, 동북아, 혹은 글로벌(global)의 시간 경과(역사)를 의미한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역으로 이들의 전략들이 한반도라는 특정한 공간의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을 상호간에 실행하고 있다. 가령, 중국몽’(2021, 2025, 2049년)과 ‘미국몽’의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time-schedule)과 이 전략

단상들”, 『문학과사회』, 30(3), 2017.

6) 슈테판 권첵 저, 이기흥 역,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서울, 에코리브르, 2010)를 참조할 것.

7) 발터 벤야민(W.Benjamin) 저,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서울: 길, 2016)을 참조할 것.

들이 한반도에 설정한 시간이 한반도 통일 위상(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⁸⁾

시간 (역사적 경과/질서의 변화/전략의 시간)		
역사적 경과 질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 21세기: 냉전 2.0⁹⁾ 	
전략의 시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 2025년 ■ 2049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행정부¹⁰⁾

둘째, 공간이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이 표방하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는 지리학(地理學), 지정학(地政學), 지경학(地經學)의 구조를 의미한다. 가령, 미국의 전략적 공간 구조는 세계적(‘위대한 미국 건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략적 공간구조(‘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과 천하질서 구축) 또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 (지리학+지정학+지경학)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 Make America Great Again ■ 동북아 및 한반도 수준: 헤게모니 전략 분석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 인류운명공동체(天下秩序)¹¹⁾ ■ 동북아 및 한반도 수준: 헤게모니 전략 분석

셋째, 개념과 장소로서 한반도이다. 여기서 ‘한반도’는 일종의 개념이기도 하며 장소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조합되거나 재구성된 한반도를 위상학 혹은 시공간에서 성찰한다.

‘한반도’ (개념 & 장소)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issue)와 아젠더(agenda) ■ 분단(통일) 문제 / 북한 핵문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 지대 / 편입 지대 / 전략 지대

8) 중국몽의 시간 전략은 2021년과 2049년과 같은 시계열 시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 공표한 [중국제조 2025]도 2025년을 시간적 기점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9) 21세기 현재를 ‘냉전 2.0’으로 보는 견해는 방법론의 사례를 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참조는 김흥규, “미국의 대 중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국제정치논총』58권 3호(2018)를 참조할 것.
 10) 미국의 전략적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로 한정하였다. 중국과 달리 미국은 시간보다는 대상 혹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한다.
 11) 2017년 10월 중국은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를 선포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기획하면서 이를 ‘천하질서’로 부르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문제)란 남북한 분단(통일)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로서의 한반도를 규정한다. 즉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속에서 한반도란 이러한 이슈와 아젠더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일종의 개념적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실행하는 전략의 공간 속에서 대상화되는 장소적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개념과 장소, 이 양자의 조합과 재구성이 한반도의 통일 위상학을 규정하거나 결정하는 변수로 기능한다.

3. 전략과 운명들

본 연구에서 한반도의 전략과 운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연구 담론이다. ‘운명’(運命: destiny)이라는 것은 문자가 갖는 의미 그대로¹²⁾ 하나의 ‘명백함’(manifest)을 결론으로 지니고 있어서 이른바 ‘명백한 운명’¹³⁾의 담론으로 구성된다. 超人的(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인 진행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운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략’은 한반도의 핵심적 이익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결국 양자를 조합하면 명백한 운명을 실현하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일종의 추상적인 레토릭이기는 하지만, 한반도가 현재를 축으로 하여 미래에 가야만 하는 ‘운명’(destiny)을 가리키며, 이것은 말하자면 명백한 지향과도 같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된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가해진 명백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통일’로 간주하며, 시간, 공간, ‘한반도’(개념과 장소)의 요소를 통해서 그 위상(학)을 도출한다.

‘핵심 이익’은 분단된 한반도가 정언명령적인 미래 비전으로 소유하고 있는(혹은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핵심이익에 들어가는 범주의 이익은 그 국가와 분리 불가능성, 다른 집단으로의 양도 불가능성, 시간적으로 연기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간주한다. 가령, 중국의 경우 핵심이익은 사회주의 제도, 영토, 국가 통일, 평화번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현시기 한반도의 핵심이익을 구성하고 정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핵심이익을 구성하는 것 그 자체는 한반도, 특히 한국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및 한국의 핵심이익을 정립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실현하고 그 실현 상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과 시나리오의 생산은 본 연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II.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전략

21세기, 특히 구체적으로 2017년에 공식적으로 표방한 이후 미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글로벌 전략이 바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시간, 공간 구조, 그리고 ‘한반

12)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한다.

13)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1840년대 담론에서 차용한 것이다.

14)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28권 2호(2013).

도'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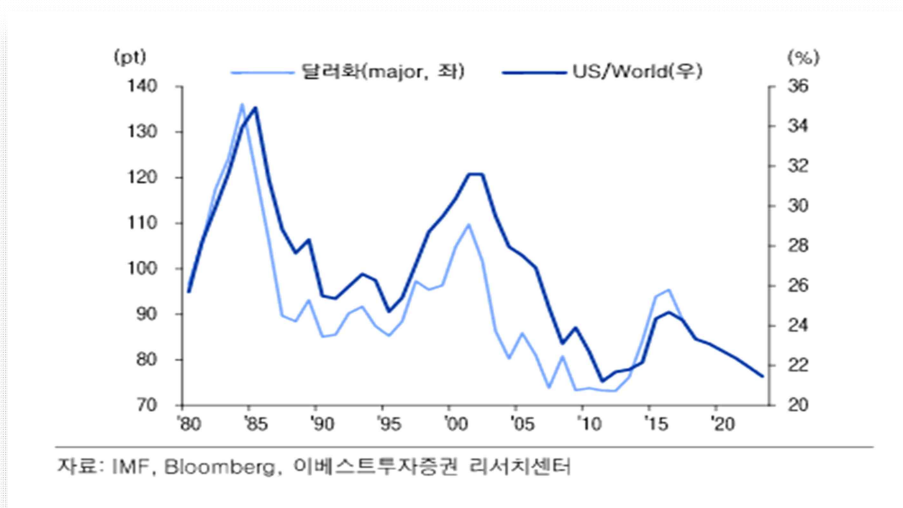
1. 21세기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의 배경과 인식론

여기서는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변화되고 수립되는 환경적 요소들과 그것들의 영향력들을 큰 틀에서 식별하여 정리한다. 또한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및 세계전략, 동북아 전략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론을 탐색하고 그 인식론적 구조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예각(銳角)의 영향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기반의 현격한 약화 ▪ 경제 구조와 생산 체제에서의 극적 변화 발생 ▪ 글로벌 정치 질서의 이중적 위계 구조화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하였다.¹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글로벌 전략을 변화시켰다. 첫째, 미국은 과거 냉전 시기에는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가지고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역량과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냉전 개시기만 해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은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EU)의 성장, 인도 등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그림] 전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달러 인덱스



둘째, 미국의 경제구조와 생산 체제에서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사실상 20세기 말에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세계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구조와 생산 체제 또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전통 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중산층의 해체가 전면화 되었으며, 또한 극단적인 빈부격차 등이 발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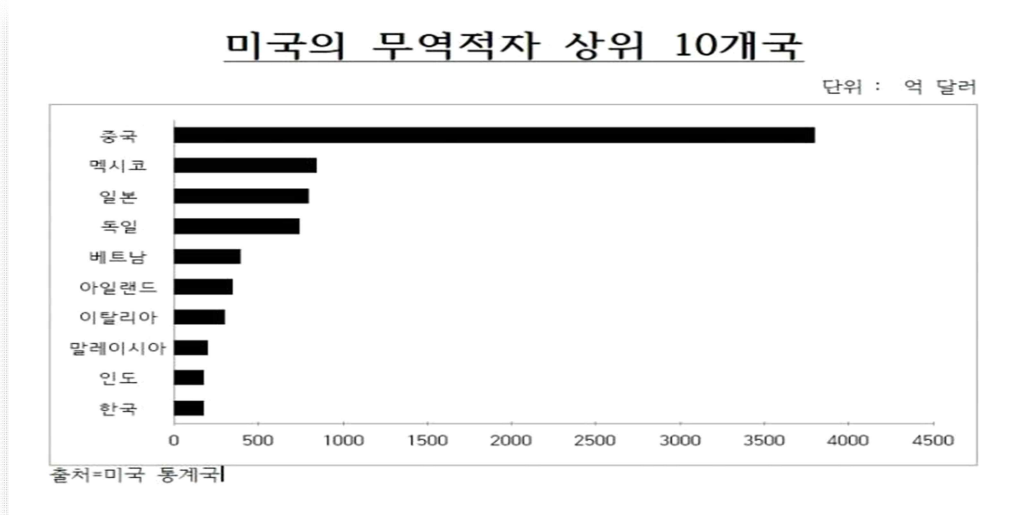
15) 최장집, “트럼프의 큰 그림과 한반도”, 『중앙일보』, 2018.6.25.

셋째, 글로벌 정치 질서의 구조가 변화되었다. 글로벌 정치 질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혹은 단극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경유하여 2010-12년을 대략적인 기점으로 하여¹⁶⁾ 현재에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이중적 위계구조’의 양상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출현으로 인해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¹⁷⁾ 위한 전략적 고민을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거듭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도출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의 공통점은 바로 중국의 견제라는 것이다.

2. 중국 견제전략의 연속성 : ‘아시아 중심축 이동’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냉전 시기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압박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군사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으며, 결국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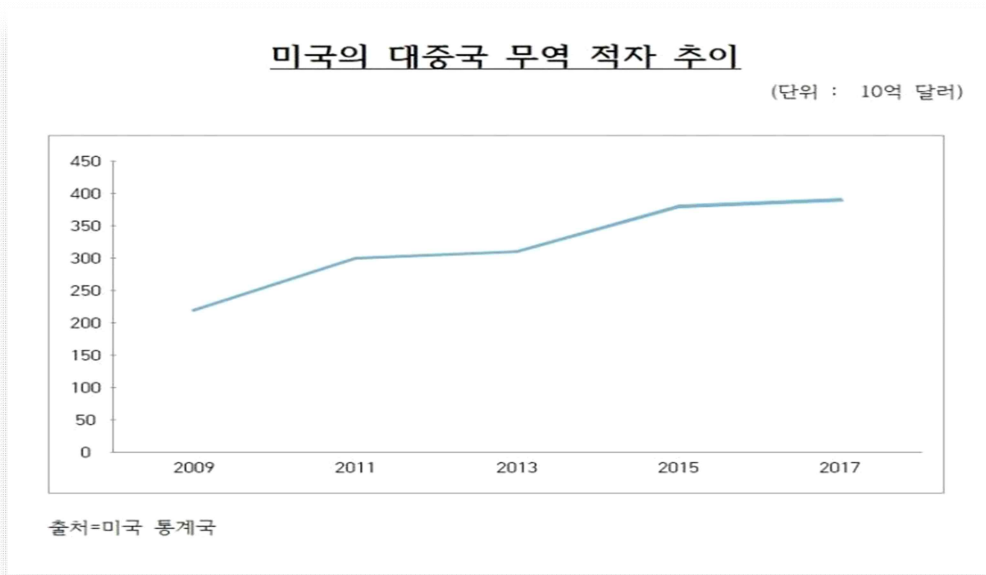
중국과의 경제격차 문제도 미국이 위협수위로 생각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미중 간의 GDP 격차 또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2005년의 경우, 미국(13.1조 달러)과 중국(2.3조 달러)의 GDP 는 약 5.7배의 차이가 났지만 2017년의 경우 미국(19.4조 달러)과 중국(12조 달러)의 GDP 격차는 불과 1.6배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무역규모도 1996년에 미국(1조 5천억 달러)과 중국(3천 9백억 달러)은 4배 차이가 났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역전(미국 3조 8천억 달러, 중

16)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2010년에 중국은 GDP총량에서 일본을 추월하며, 2012년에 IMF가 발표한 구매력 기준 GDP 총량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미중 간에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이 시작되었다.

17)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의 슬로건은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후보자 시절부터 내걸기 시작한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명백한 운명에 대한 담론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내걸어 졌다.

18) 최장집, 『중앙일보』, 2018.6.25.

국 4조 2천억 달러)되었다.¹⁹⁾



2010-12년 이래로 굴기(崛起)하고 부상(浮上)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재설정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은 도광양晦(韜光養晦)²⁰⁾를 넘어 2012년 주동작위(主動作爲)와 분발유위(奮發有爲)²¹⁾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국제사회에 강대국 정체성을 표방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전략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아 추진하였다.²²⁾ 초반부터 중국의 앞마당에 위치한 국가들, 즉 미얀마, 캄보디아 등을 순방하면서 이 전략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이 중국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내걸고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추월하는 목표로 삼아 글로벌 수준에서 경제적 굴기를 진행하자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경제외교를 통해서 대중국 견제전략을 본격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은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되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사실상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인 셈이다. 로스 다투셋(Ross Douthat)에 따르면,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²³⁾ 따라서 오바마와 트럼프의 양 행정부의 전략에는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하며, 이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 Bloomberg, May 24, 2018. (검색일: 2018.5.25.)

. <http://www.bloomberg.com/graphics/2016-us-vs-china-economy/>.

20)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방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전략을 말한다.

21) 2012년 시진핑은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主動作爲]와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奮發有爲]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표방했다.

22)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34권 4호, 2018;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16권 2호(2011);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014.5, pp.1-24.

23) Ross Douthat, *The New York Times*, 2018.6.25.

3.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와 작동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에 직면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²⁴⁾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놓았다. 2017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워싱턴에서 미국-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인도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제정치적 모태가 되었다.

또한 2017년 11월, 일본의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미일 동맹 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²⁵⁾

※ 미국, 2017년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인도-태평양 전략'

- 4각 핵심동맹: 일본, 호주, 인도
- 한국은 굳건한 동맹이자 우방국으로 일본과 함께 MD체제의 파트너
-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과 테러(지원)군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이 주요 견제 대상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방지의 실현
- 인도에 새로운 전략적 안보 파트너의 지위를 부여
- 일본을 미국의 핵심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 안보적, 경제적, 지경학 및 지정학적 의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2018년 5월, 미국의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태평양사령부²⁶⁾는 최근 그 명칭을 '인도 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군사 전략 면에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²⁷⁾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3년부터 야심차게 실행해 온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정학적 의미와 지경학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되는 남아시아와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되는 동아시아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를 경유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대부분을 지역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전략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과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경학적인 창원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

24)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 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25) 미국의 대중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흥규,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와 새로운 냉전의 시작", 『국제정치논총』58권 3호, 2018을 참조할 것.

26)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는 1947년 1월 1일에 창설되어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 본부를 두었으며, 미국의 9개 통합 전투사령부 중 하나이다.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통합 전투 사령부이다. 박병광, "미중패권경쟁과 지정학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27) 김지석, "인도-태평양' 구상의 허와 실", 『한겨레신문』, 2018.6.13.

28)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 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4.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위상

미국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미국 패권의 연속성(유지)이며 중국의 굴기와 대미(對美) 도전을 뿌리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목표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이 한반도 문제에 던지는 함의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위상학(topology)에 가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²⁹⁾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한반도의 위상은 대단히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동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 작동과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미래비전과 전략 기반의 상이함, 방법론에서의 차이 등이 존재할 가능성과 실제로 그 차이와 상이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한반도 통일 위상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행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와 위상을 미국 전략의 지정학 속으로 급격하게 편재시킬 수 있는 역설이 발생했다.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적 결합과 융합은 매우 복잡한 대외 정책적 고려와 한미와 한중 간의 상호 인식론적 회로를 가동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미 동맹의 21세기적 의미와 21세기 한미 관계의 본질을 큰 틀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와 연동되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험을 거쳐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Ⅲ. 중국의 글로벌 전략과 중국몽(中國夢)

21세기 중국몽(中國夢)과 그 집행 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몽과 일대일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가동하고자 했던 배경과 그 전략의 기본적인 구조를 정리한다. 나아가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인식론을 살펴본다.

1. ‘중국몽’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배경과 인식론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굴기 혹은 부상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가장 커다란 변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 국력도 급상승하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연간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GDP에서 일본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2010년이며 2018년 현재 미국에 이어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³¹⁾ 중국의 군사비 지출도 2016년 기준 2,152억 달러로서 미국의 7000억 달러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³²⁾

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 또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29) ‘통일 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나리오는 4장과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반도에 갖는 의미만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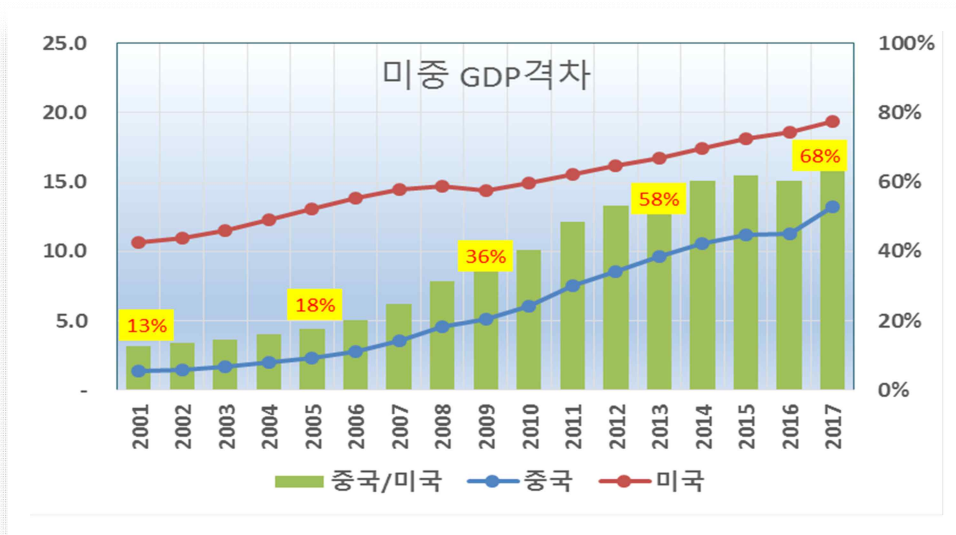
30) 현재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31)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이미 구매력 기준에 의한 실질 GDP는 미국을 추월하였다.

3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05년의 경우, 미중 간 GDP는 약 5.7배의 차이가 났지만 2017년의 경우 불과 1.6배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무역규모도 1996년에 미중 간에 4배 차이가 났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역전되었다.³³⁾

[그림] 미국-중국 GDP 격차



*출처: '중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변동 추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자료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뒤이어 사회문화적 힘에 기반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구축과 육성에도 매진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종합 국력의 신장과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청일전쟁과 굴욕이라는 '치욕의 세기'(a century of humiliation)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중국의 세기'(a Chinese Century)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³⁴⁾

시진핑은 2012-13년 중국몽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³⁵⁾를 표방하면서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한 '중화제국의 위대한 부흥'을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몽의 구체적인 경제전략이 바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이다. 사실상 '일대일로'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개념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구상'은 고대의 실크로드 주변지역 및 해상 실크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산업, 통상 연계 계획으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³⁶⁾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이란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실크로드 해상로의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연계뿐만 아니라, 통상, 산업, 지역 개발을 대대적으로 포괄하는 말 그대로 중국의 대외 경제적 그랜드 플랜이며 중국식으로 구상된 국제무역 질서 재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33) Bloomberg, May 24, 2018. (검색일: 2018.5.25.). <http://www.bloomberg.com/graphics/2016-us-vs-china-economy/>.

34) 김동성,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경기연구원 이슈집단 2018.4.

35)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란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를 말한다. 미국과 중국은 구형대국관계(舊型大國關係)인 미국과 소련과 달리 호혜평등과 공동번영을 구가하는 관계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36) 중국의 주장은 글로벌 경제 변화와 중국의 성장 둔화에 직면하여 글로벌 자유무역과 개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출한 전략 구상이다. 『中國一帶一路網』(2017.2.7.)

37) KOTRA,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2018).

[그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



‘일대일로’는 육지와 해상에서 전개되는 ‘21세기형 실크로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육지와 해상의 연선 상에 있으며, 세계 인구의 65%에 달하는 44억의 인구와 세계 경제의 29%에 해당하는 21조 달러의 GDP 규모 국가들이 집결해 있다. 중국은 연간 3조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일대일로 구상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은 순수하게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상으로 인해 구축되는 인프라 투자는 경제와 군사 목적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다중적 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⁸⁾

2. 중국몽의 시간(time-schedule)

중국몽과 일대일로에서 설정된 시간 개념(time-schedule)은 크게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라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2021년과 2049년을 두 개의 100년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었던 해와 1949년 중국 혁명과 현재의 신중국이 건설된 해를 100년으로 기념하는 시간 기획인 것이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2021년을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과 2049년을 다통(大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획기적으로 설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21년을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설정하고, 2049년을 중국식 방식으로 세계를 통제하는 시기로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샤오강 사회 실현 ■ 2049년 다통 사회 실현 	<p>[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샤오강 사회 실현 ■ 20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 2035-50년 사회주의 강국건설 ■ 2050년 이후 세계 선두국가 실현

38)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 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시진핑은 2017년 10월의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몽의 타임 스케줄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즉 중국을 2050년까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는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종합적인 국력 경쟁을 예고한 것과 같다.

또한 '강군몽'(強軍夢)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군사능력의 중국을 실현하는 꿈을 의미한다. 중국의 꿈을 강국(強國)의 꿈인 동시에 강군(強軍)의 꿈으로 제시한 것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³⁹⁾에 맞서는 중국의 세계 군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국몽과 한반도 위상

현재와 향후에 중국몽과 한반도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몽에서는 한반도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상은 중국몽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 분석 지점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좀 구체적인 수준에 던질 수도 있다. 중국몽이 중국적으로 선호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한반도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중국몽에서 그려지는 한반도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결국, 중국몽과 한반도의 관계를 위상학 속에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의 역대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는 달리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구상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존재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의 극복, 즉 통일 한국을 중국과 중국몽은 자신들과 어떻게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몽의 실행과 그 목표의 실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국몽과 한반도 미래비전(통일)의 추구는 역내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이 걸어가야 할 여정, 외교적 환경, 문제 해결 프로세스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IV. 미중 대결의 성격과 한반도 위상 변화

현재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에서 중요한 지정학(地政學) 및 지경학(地經學)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한반도 자체의 위상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위상학이 이전보다 훨씬 커다란 범위에서 그리고 훨씬 강력한 강도(強度)로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한반도 공간에서 자율성의 축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39)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언과 함께 내건, 일종의 트럼프 안보 독트린이다. 이것은 레이건(R.Reagan) 대통령 시절의 '힘을 통한 평화'를 담론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40)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신북방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몽골과 연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투키디데스(Thucydides)와 킨들버거(Kindleberger) 함정

현재 글로벌 및 동북아(한반도 포함) 지역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의 범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양국 간에 무역 전쟁과 헤게모니 전쟁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합되어 있으며⁴¹⁾ 양국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는 양국이 유의해야만 하는 다양한 함정들(traps)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함정’과 ‘킨들버거(Kindleberger)의 함정’이다.

<표> 미국과 중국의 2018년 관세 전쟁

2018년, 미국-중국의 관세 전쟁	
미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7.6. 관세 25%, 340억 달러 ■ 2018.8.23. 관세 25%, 160억 달러 ■ 2018..9.24 관세 10%, 2,000억 달러 (2019년 1월부터 25%로 인상) <p>※ 관세부과 검토 2,670억 달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7.6. 관세 25%, 340억 달러 ■ 2018.8.23. 관세 25%, 160억 달러 ■ 2018.9.24. 관세 5-10%, 600억 달러

※출처: 오애리, “美, 오늘 2000억달러 규모 대중국 추가관세 발동..중도 보복관세”, <http://news.v.daum.net/v/20180924084828503> (검색일: 2018.9.23.); The New York Times, “U.S-China trade war could last for years”, (September 21, 2018), p.7

첫째, 미중 대결이 극단화될 경우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패권 국가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위협을 가할 때 양국 간에 발생하는 전쟁(혹은 위협 상황)을 말한다.⁴²⁾ 현재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현재의 글로벌 패권국가 미국이 이 함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지정학적 변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다.⁴³⁾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안하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관계로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고, 상호 핵심 이익의 존중과 호혜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의 배후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고자 하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전부터 이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였는데,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세계 2대 강대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41) 『환구시보』는 미중간의 무역 갈등을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패권 경쟁]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는 “6.25 전쟁과 같이 결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BS』, 2018.4.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17&ref=D> (검색일: 2018.04.08.)

42)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신흥 세력 아테네와 기존 세력 스파르타 사이에 발생한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서 따왔다.

43)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pp.244(국역, 『예정된 전쟁』).

둘째, 현시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자칫하면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부상(浮上)함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느라 국제 질서에 공헌하는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임승차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⁴⁴⁾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Trumpism)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미국이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패권적 리더십⁴⁵⁾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전망한다.

향후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특정한 전개 양상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오히려 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공존 협력의 이미지를 육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중국이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공공재를 제공할 역량이 아직은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킨들버거 함정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⁴⁶⁾ 이 함정을 피하려면 양국이 서로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양자의 함정은 모두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⁷⁾

2.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위상 변화

현 시점에서 한반도는 지리학,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⁴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상과 실행에서, 그리고 중국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행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상이 커졌다는 것은 평화체제와 한반도 통일과 같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외부적 영향력과 규정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는 점점 더 미중 대결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율성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갈등과 대립 일변도의 관계를 전개하면서 주변국들을 서로 진영을 갈라 역내의 긴장과 갈등의 수준을 상승시키게 될 경우, 한반도 문제(통일 문제, 평화체제 문제,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은 더욱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그 구성 요소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 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이들 양국의 구상과 연계될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이 더

44) 미국의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C.Kindleberger)가 1973년에 출판한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국역: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재기한 가설이다. 킨들버거는 1929년 세계대공황은 구 헤게모니 국가인 영국의 지위를 대체한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다.

45) 패권 국가는 글로벌 공간에서 공공재, 즉 크게는 자유무역질서, 구체적으로는 기후, 재정, 해양 항행 등의 다양한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46) 조지프 나이, “킨들버거 함정”, 『한국일보』, 2017.1.15.의 논지를 참조할 것.

47) 2017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협력을 통해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언급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48) 김동성,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8.4, p.10.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중국 간에 가시화되고 있는 지정학 지경학적 게임 속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위험 분산 전략'(hedging strategy)과 '사례별 지지정책'(issue based support)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논의⁴⁹⁾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 간에 진행되는 중국몽의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은 충돌뿐 아니라 타협의 상황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우호적인 미중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⁵⁰⁾

V.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과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

1.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

여기서는 서론부터 4장까지에서 설명해 왔던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실시한다. 즉,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을 추적하고, 한반도 통일이 그 위상학 속에서 어떤 좌표로 유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위상학 그 자체의 동학과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병행한다. 이러한 위상학 고찰을 통해서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고자 한다.

1) 시간과 위상

'시간'과 '한반도 통일의 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서술한다. 첫째, 20세기와 21세기의 시간 속에서 그 위상의 변화를 서술한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시간과 중국의 전략적 시간에 따라 한반도 통일의 위상 변화를 서술한다.

20세기와 21세기에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사실상 '급변'하였다. 20세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글로벌 세계를 가동시키고 있었을 때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글로벌 수준의 자유주의적 의제에 부응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은 분단과 비극, 전쟁의 안티-테제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역내의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지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21세기에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과 붕괴 현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패러독스'(paradox)가 그것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영역은 이전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는 다른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역내 국가들의 국가주의적 지향과 민족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형성된 맥락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9)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 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50)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2018.3.28

미국의 시간과 중국의 시간에 따른 한반도 통일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행되는 시간은 한반도 통일의 위상에서 기회와 도전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미 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교집합,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고차화하기 위한 한일 동맹관계의 창출, 대중국 견제 전략에의 참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시간에 따르면 최고의 고려사항인 대중국 전략(견제와 압박)에 비하면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낮아진 것이다.

중국의 중국몽과 일대일로가 지향하는 시간(2021, 2025, 2049년)의 경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도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문제(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중국몽이 실행되고 일대일로 구상이 집행되는 현재의 중국의 시간을 고찰할 때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리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었다. 중국은 대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를 사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 축소 현상은 중국의 전략적 시간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강화될 수도 있다.

2) 공간과 위상

‘공간’과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다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非가시적인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반도가 미국(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공간과 중국(중국몽과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공간이 됨에 따라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에서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획(혹은 포획)하려고 한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가능한 한 대중국 견제 전략의 내부 공간으로 배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⁵¹⁾ 한미 간의 공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미국의 전략 공간의 확장과 재구성으로 인해 이전보다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간적 자율성의 축소로 연결된다.

중국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전략도 또한 한반도라는 공간을 자신의 전략적 공간 안으로 구획(포획)하고 있다.⁵²⁾ 중국몽의 대외적 공간 전략은 태평양까지 뻗어 나가는 공간이며 여기에는 한반도가 포함된 공간 개념을 작동시키고 있다. 일대일로의 공간 전략 또한 한반도를 포함하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다.⁵³⁾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한반도 통일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함께 이것도 역시 자율성의 축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은 그들의 꿈(미래비전과 전략)에 담을 공간들을 구획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꿈과 전략에 포섭되는 공간들은 자율성보다는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지정학, 지경학, 지리학에서의 더욱 더 밀접한 연계를 가져 오면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이 보다 큰 범위의 동학(動學) 속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반도’와 위상

‘한반도’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중적인 차원을 전제하고 서술한다. 여기서 한반도

51)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52) 물론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도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의 연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53) 『동아일보』, 2018.9.17

는 개념이자 장소라는 이중성을 갖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개념으로서의 한반도는 문제(problem)나 프레임(frame)으로서 나타난다. 분단 및 통일 문제, 북핵 문제, 평화 체제 문제 등이 문제로서의 한반도를 구성하며,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라는 프레임을 구성한다.

		미국	중국
개념	frame	한반도 문제	한반도 문제
	problem	분단 및 통일, 평화 체제, 비핵화	분단 및 통일, 평화 체제, 비핵화
장소(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대⁵⁴⁾ ■ 한미 동맹의 공간 ■ 대중 전략의 교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세력의 완충 지대 ■ 중국 영향력 영토성 ■ 중국 전략 실행 공간

시진핑의 중국몽과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한반도 분단 및 통일 문제, 평화 체제 수립,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는 의제로 위치 지워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리하여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먼저, 장소(space)로서의 한반도는 물리적(지리학)이면서도 전략적(지정학+지경학)인 공간으로 설명된다. 미국에게 한반도라는 장소는 한미 동맹의 작동 공간이자 대중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 중국에게 한반도라는 장소는 미일 동맹 세력의 차단하거나 중화하는 완충지대이자 중국의 대미 전략을 실행하는 장소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맥락으로부터 규정 받게 된다.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장소로서의 한반도를 통해서 본다면, 통일의 위상(학)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미국의 트럼프 체제가 등장한 이후 보다 더 급속하게 한반도라는 공간과 개념을 넘어 더 큰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급격하게 증대된 장소이겠지만, 자율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폭적으로 축소된 장소로서 존재한다. 한반도 통일의 위상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미국과 중국 공간에 편입됨으로써 더욱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2.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명백한 운명이란 21세기에 한반도가 가야만 하는 운명적 경로를 의미한다. 바로 한반도 통일이 그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어 구성되어야 하는 이 ‘운명’이야말로 명백하게 한반도의 21세기 정체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은 지난 20세기보다 복잡해지고 미묘해졌다. 시진핑과 트럼프 이전보다 자율성이 축소되었다. 이는 이전보다 세련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명백한 운명’, 즉 통일을 실행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외교 전략과 대안을 구성하고

54)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서울: 삼인, 2000)에서 브레진스키는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독수리가 날개 짓을 시작하는 ‘횡대’로서 표현하였다.

정립하는 과제가 부상한다. 이것은 한반도는 남한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북한이 남쪽으로 확대 되는 미래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 이익’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운명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이 명백한 운명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부동(不動)의 핵심 이익을 도출하고 이를 정형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진다. ‘핵심 이익’은 분단된 한반도가 필연적으로 비전으로 삼아 보유해야 할 이익을 말한다.

핵심이익의 첫째는 통일이다. 통일은 분단 한반도와 분리 불가능하며,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들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시간적으로 연기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는 통일의 기반이 되며 통일 그 자체이기도 한다. 평화는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보편적인 가치이다. 셋째는 경제적 번영이다. 빈곤을 극복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한반도의 핵심적인 이익의 하나가 된다. 주변국들이 함께 할수록 한반도는 더 풍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핵심 이익이 구성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핵심 이익은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을 고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VI. 결론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중국몽/일대일로 전략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명백한 운명과 핵심이익을 도출해 보았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좀 더 글로벌한 차원(글로벌 및 동북아 차원)에서, 그리고 공간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성찰을 획득하려고 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이론적 자원을 동원하여 연구하였고,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가 갖고 있는 시간, 공간, 프레임 차원의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 공간, 지리학 등의 세계 속에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위치시킴으로써 현시기의 한반도 통일의 위상(학)을 검토하였다.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 및 글로벌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와 욕망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로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개념으로서 장소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려고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상대화’하고 ‘대상화’함으로써 통일 정책 수립에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로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Graham Allison,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 F.G.Hoffman, 2013, *Forward Partnership: A Sustainable American Strategy*, Orbis.
- R.J. Art, 2010,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Chin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25
- J.J.Mearsheimer,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3.
- 강동호, “문학의 한계 안에서의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또는 비평의 위상학을 위한 단상들”, 『문학과사회』, 30(3), 2017.
- 김동성, 2018,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경기연구원.
-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서울: 후마니타스, 2015)
- 김흥규, “미국의 대중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국제정치논총』58권 3호(2018)
-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28권 2호(2013).
- 발터 벤야민(W.Benjamin) 저,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서울: 길, 2016)
- 슈데판 권첵 저, 이기흥 역,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서울, 예코리브르, 2010)
- 왕하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 분석: 동인, 목표 및 수단”, 『성균 차이나브리프』, 2017.7.
- 정재호, “2013년 시점에서 평가하는 미중관계”, 『2013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2014.
- 정재호, “미중 관계에서의 상호인식의 문제”, 『2014년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2015.
-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016.
-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국제정치논총』, 2018.3.
- 안치영,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전망』, 2018.2
-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2011.9.
- 신대진,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시민과세계』, 2018.1
- 박홍서, “미중관계와 한반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일을여는역사』, 2017.9.
- 김태현, “투키디데스의 ‘이중함정’: 중국의 부상과 현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2017.6.
- 윤지원,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6.8.
- 박광득, “중국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 분석과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2016.1
- 전재정, 주재우,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외교 과제”, EAI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012.10.
- 주형민, “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협력자 혹은 경쟁자”, 『평화연구』, 2011.4
- 박한규,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의 향후 전망: 갈등과 협조의 이중주”, 『사회과학연구』, 2014.1.
- 조나단 폴락,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전략연구』, 2014.2
- 최장집, “트럼프의 큰 그림과 한반도”, 『중앙일보』, 2018.6.25.
- 마상윤, “미중관계와 한반도: 1970년대 이후의 역사적 흐름”, 『역사비평』, 2014.11
-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010.6

- 2017년,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국가안보전략보고서)』
- Bloomberg, May 24, 2018. (검색일: 2018.5.25.)
 . <http://www.bloomberg.com/graphics/2016-us-vs-china-economy/>.
-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34권 4호(2018)
-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16권 2호 (2011)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014.5.
- Ross Douthat, *The New York Times*, 2018.6.25.
-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 게임의 본격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6(2018).
- 김지석, “인도-태평양’ 구상의 허와 실”, 『한겨레신문』, 2018.6.13.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 KOTRA,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2018).
- 『KBS』, 2018.4.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17&ref=D> (검색일: 2018.04.08.)
-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pp.244(국역, 『예정된 전쟁』).
- C.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국역: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 조지프 나이, “킨들버거 함정”, 『한국일보』, 2017.1.15.
- 『동아일보』, 2018.9.17
-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